

‘국보 다실 조안(如庵)’

조안

오다 우라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조안’은 그의 차에 대한 미학과 개성이 구현된 것입니다. 센리큐(1522-1591) 등과 같은 다인들이 쌓아올린 다실 건축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점이 많은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혹은 그것 때문에) 조안은 명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오가타 고린(尾形光琳, 1658-1716)은 조안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위해 복제를 의뢰했습니다. 그 복제된 다실은 현재 교토의 닌나지 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다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역사

1621년 우라쿠가 타계한 후 그의 유품은 겐닌지 절의 관리 하에 놓였고, 기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가 1872년 전국 불교시설의 권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겐닌지 절의 토지와 기타 소유물은 강제로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그 결과 쇼텐인쇼인, 조안, 조안의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 로지) 등을 포함한 우라쿠 저택의 소유권이 교토 기온에 양도되었고, '우라쿠칸(有樂館, 우라쿠관)'이라는 명칭으로 찻집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온은 1908년에 이 건물을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에게 매각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쓰이 다카미네(三井高棟)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미쓰이 가문

미쓰이 다카미네(三井高棟, 1857-1948)는 19세기 말 유명한 부유 상가 중 하나였던 미쓰이 종가의 10대 당주였습니다. 그는 평생동안 다도를 배웠고, 전통적인 건축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쇼텐인쇼인과 조안, 그리고 조안의 다정을 구입하여 1908년에 도쿄의 아자부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이축했습니다. 1938년 그는 가나가와현 오이소의 별저에 은거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했습니다. 노후에는 다도에 전념하고자 했고, 또 밀집된 도쿄에서는 화재 위험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도쿄가 불바다가 되었어도 이 건물은 이미 도쿄를 떠나 있어 무사했습니다.

이누야마(犬山)로의 이전

미쓰이 다카미네가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에 조안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미쓰이 가문의 오이소 저택에 대한 권리와 그

건축물, 미술품 등의 대부분을 메이테쓰(나고야철도주식회사)가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라쿠엔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1년 초 조안을 이누야마(아이치현 이누야마시)로 옮기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건물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벽과 버팀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엑스레이 촬영이 실시되었습니다. 해체가 시작되자 꼼꼼한 도면 작성과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각 부속품에는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모든 부속품은 안습과 방수커버로 감싸고, 현관 부분(토방과 그 주변 벽)은 더욱 강력한 보강을 위해 나무틀로 포장했습니다. 부속품은 진동흡수장치가 있는 대형트럭에 실렸고, 조안은 1971년 3월 31일 오전 1시 30분 NHK 취재진과 함께 오이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이 규정 높이를 약간 넘겨 트럭 1대가 받이 묶이는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다실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톨게이트 직원들은 트럭을 통과시키는 것을 주저했고, 초조했던 메이테쓰의 사원이 최종적으로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원과 수복

조안이 무사히 이누야마에 도착했고, 수복사들이 재조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빗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의 영향으로 수리가 필요한 곳도 있었지만, 원래의 건물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버팀목 등 손상된 구조부분은 합성수지로 보강하고, 나무와 비슷한 질감을 재현하기 위해 도장을 했습니다. 또 지붕의 관재 등 교체가 필요한 것은 당시의 공법과 재료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수복사들은 이 기회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변모된 조안의 모습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오이소에서의 배치를 완전히 바꾸어 조안과 쇼텐인쇼인을 우라쿠의 교토 저택에 있던 배치로 재결합했습니다. 오이소에서는 쇼텐인쇼인의 남동쪽 모퉁이에서 바깥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라쿠엔에서는 이 복도를 없애고 쇼텐인쇼인의 뒷마루에서 조안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배치로 변경했습니다.

건축의 특징

조안에서는 다회(茶會, 차모임)에 오신 손님은 건물 남서쪽 지붕이 있는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사무라이는 칼을 빼내 맹장지 안쪽 작은 방 선반에 놓고 들어갑니다. 손님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작은 입구(니지리구치)를 통해 기듯 좁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안의 다실 넓이는 3.25조(약 5.9㎡)에 불과했는데, 이는 센리큐가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2조 넓이의 방보다는 넓지만 '작은방(小間)'으로 정의되는 4.5조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우라쿠가 손님의 쾌적함을 중시하여 다실을 넓게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라쿠는 비교적 밝은 다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조안의 지붕에는 돌출창이 있어 천창처럼 열 수 있습니다. 또 동쪽 벽에는 '우라쿠마도(有楽窓)'라고 불리는 조안 특유의 창이 2개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사각의 반투명 창으로 가는 대나무가

수직으로 박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대나무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장지문을 닫으면 대나무 그림자가 비쳐 품격 높은 음영이 생깁니다.

정면 벽과 낮은 니지리구치 반대쪽에는 다른 타입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타지마도'라고 하는데, 벽의 일부를 회반죽으로 덮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대나무와 갈대의 격자를 노출시킨 창입니다.

조안의 장식 중에서도 특히 더 특이한 것은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벽면 아래 3분의 1 이 오래된 달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는 1629 년 것도 있습니다. 이 장식은 ‘고요미바리’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주변의 물건을 재사용하여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암자의 꾸밈없는 소박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